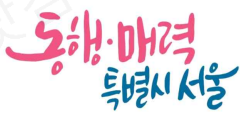


2025. 12. 2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정인성

02-2133-46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분산된 '100년 서울의 지적 史 토지기록물' 한곳에..1차사업 완료

- 일제강점기~1975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역사 보존·행정 효율·민원 서비스 향상
- 2025년 44만여 건 DB 구축 완료...2030년까지 200만여 건 디지털화 목표
- 기록물 통합으로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 강화

☐ 서울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44만여 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 전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2025년 1차 사업으로 총 441,739건을 구축했으며, 자치구별 성동구 138,759건, 동대문구 132,036건, 도봉구 129,780건, 마포구 41,164건이다.

☐ 이번 사업은 서울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종이·마이크로필름 형태의 기록물을 고해상도로 스캔하고, 지번·면적·지목·변동 사유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한 것이다.

○ 이를 통해 훼손·퇴색·분실 우려가 있던 아날로그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 ‘토지이동결의서’는 토지 소유권 변경, 지목·지번 이동, 분할·합병 등 지적 변동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서울시 토지 행정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1차 사료다.

- 그동안 해당 기록은 종이 문서, 마이크로필름, 기관별 보관 자료 등으로 분산되어 과거 이력 확인이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열람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디지털 통합 DB 구축으로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56만여 건의 기록을 추가로 디지털화하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단순 이미지화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을 정비한 뒤 지번 중심의 색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 기 구축된 1976년부터 1992년 전산화되기 전까지 지적 관련 자료를 DB로 관리해온 ‘지적보존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한 번에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토지·임야대장(부책·카드),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DB 구축 시스템

□ 아울러 2030년까지 누적 200만여 건의 영구 토지기록물 전산화를 목표로 디지털 기록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앞서 2022년에는 흑백으로 저장돼 식별이 어려웠던 33만 건의 지적기록을 고화질 컬러 이미지로 개선한 바 있으며,
- 이를 토대로 서울기록원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 중인 측량원도와 면적측정부도 추가로 디지털화하고,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기반 기록행정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디지털화 사업은 서울시 토지 기록의 역사성과 행정적 가치를 모두 살리는 기반 작업”이라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은 물론,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록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이동결의서 구축 이미지 〉

구분	구축 전	구축 후
이 미 지	마이크로필름	지적보존문서시스템 내 DB 구축
		